



보도시점 2026. 9. 29.(화) 16:00

배포 2026. 9. 29.(화) 09:00

##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, 충남 지역 자살예방 대응체계 점검

- 생명지킴추진본부, 9월 29일 충남 「천명지킴 현장소통 간담회」 개최 -
- ‘온기우편함’, AI돌봄로봇 등 지역 맞춤 자살예방 우수사례 공유

-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(본부장 송민섭, 이하 ‘생명지킴추진본부’)는 9월 29일(화) 충청남도를 방문해 지역의 자살동향과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점검하고,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논의했다.
  - 이번 방문은 전국 광역 시·도를 직접 찾아 지역별 자살 위험요인과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‘천명지킴 현장소통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.
  - 충청남도과 천안시·예산군, 충청남도교육청, 충남경찰청·소방본부, 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해 지역에서 자살 위험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, 필요한 지원까지 끊임없이 연결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.
-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살 위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총괄·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점검했다.
  - 충남은 부단체장을 ‘자살예방관’으로 지정하고 복지·경제 등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, 15개 시·군에서도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범부서 회의와 교육·캠페인, 생명존중안심마을 등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  - 충남은 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소와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 생명존중안심마을·마음봄사업장·생명존중 약국 등 주민 생활공간을 활용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.

- 특히 응급실·경찰·소방 등에서 발견한 자살시도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와 치료지원으로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.
- 참석자들은 ▲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기관 간 정보 연계 확대 ▲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 ▲광역·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정립 ▲자살예방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했다.

□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충남의 사례도 공유됐다.

- 충남은 대학·청년센터·도서관 등 32개소에 ‘온기우편함’을 설치해 청년들이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면 자원봉사자인 ‘온기배달부’가 답장을 제공하고, 위기 징후가 확인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고 있다.
- 올해 1,187건의 고민편지가 접수됐으며, 이 과정에서 고위험군 5명이 발굴돼 전문기관으로 연계됐다.
- 논산에서는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216명을 대상으로 AI돌봄로봇과 동년배 상담을 결합한 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.
- AI돌봄로봇이 위험단어와 활동량·수면 등 생활 변화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동년배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, 데이터·기술을 활용한 위험 신호 감지와 사람의 돌봄을 연결하고 있다.

□ 송민섭 본부장은 “자살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”며, “지역별 자살동향과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, 보건·복지·경찰·소방·교육 등 각각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를 연결해 필요한 사람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”라고 강조했다.

※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·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‘109’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‘마들렌’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무조정실<br>법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| 책임자 | 과 장 한두희 (044-200-6367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이효진 (044-200-6379) |

대한민국  
정책브리핑

다채롭게  
대한민국

OPEN  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## 우수사례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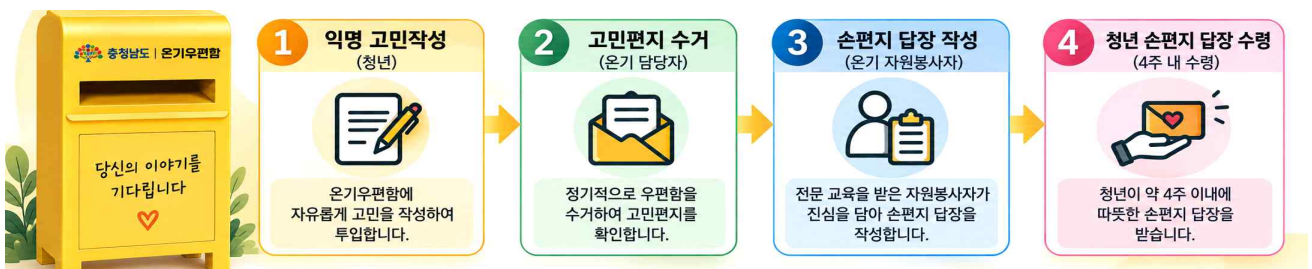
## 청년층 자살예방 온기우편함 설치·운영

## □ 추진배경

- '25년 자살실태조사 결과, 청년층의 외로움·정서적 고립(39.7%)이 주요 자살위험요인으로 청년층 조기개입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필요
- ※충남 20대 자살률: '22년 24.3명(58명) → '23년 28.2명(62명) → '24년 19.8명(44명)

## □ 사업 내용

- (사업기간) 2026. 1. 1. ~ 2026. 12. 31.
- (사업위치) 도내 13개 시·군 (※ 대학 미설치 지역: 계룡, 서천 제외)
- (사업량) 32개소 (대학28, 청년센터1, 도서관·북카페2, 지하철역1 등)
- (사업예산) 1억원(도비 30%, 시군비 70%)
  - 설치비 : 1,500천원 x 32개소 = 48,000천원
  - 운영비 : 150천원 x 32개소 x 11개월 ≒ 52,000천원
- (주요내용) 청년층 정서 지원 및 위험군 발굴 위한 익명 고민편지 상담 지원
  - 대학, 청년센터 등 청년이용장소에 온기우편함 총 32개 설치 운영
  - 온기배달부(자원봉사자) 고민편지 답장, 고위험군 발굴관리(센터 연계)



- (운영실적) 고민편지 1,187건 접수·답장 제공, 고위험군 5건 발굴·연계

## □ 향후 계획

- 고민편지 모니터링 통한 우울·자살고위험군 조기발굴 및 신속 연계
- 사업효과 분석결과 바탕으로, 중·고등학생까지 사업대상 확대

## 우수사례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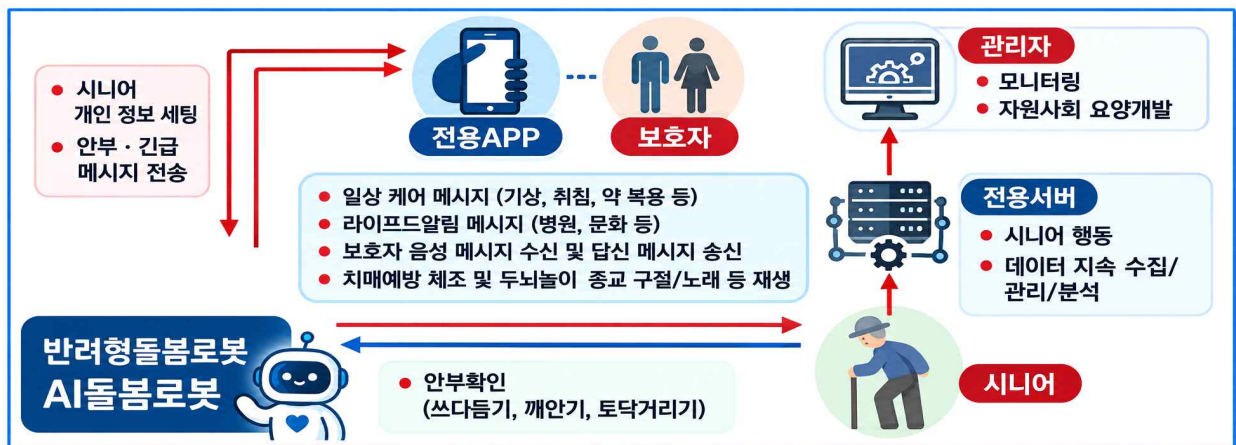
## 시돌봄로봇과 동년배 파트너가 만드는 따뜻한 연결망

### □ 추진배경

- 홀몸어르신 증가 및 가족·이웃 등 사회적 관계망 약화, 정서적 고립
- 돌봄사각지대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 대응 한계, 상시 안전·돌봄 필요

### □ 사업 내용

- (사업기간) 2026. 1. 1. ~2026. 12. 31.
- (사업위치) 논산
- (사업량) 216명 (65세 이상 홀몸어르신)
- (사업예산) 137백만원(로봇유지관리 58, 동년배상담자 활동비 등 79)
- (주요내용) 홀몸 어르신 **AI돌봄로봇** 보급 및 동년배상담사 정서지지
  - 돌봄로봇 관제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대상자 상태 파악
    - \*위험단어 파악 양방향 대화, 일상케어(활동량, 수면, 복약), 종교·음악 콘텐츠 등
  - 우울, 자살사고 등 이상 징후 감지 시 동년배 상담사(60세↑) 출동
  - 동년배 상담사(요양보호사, 26명) 주 1회 대상자 방문 안부 확인
  - 감정알기, 우울, 관계개선 치유 집단프로그램 및 심리검사 지원



- (추진성과) 우울감 감소(10.2→8.2), 삶의 질 척도(25.4→27.3) 향상

### □ 향후 계획

- 서비스 표준 매뉴얼 제작, 로봇기능 고도화로 서비스 질 향상
- 거동불편 어르신 등 잠재적 고위험군으로 보급대상 확대